

지역 소식통

김제 백산저수지 산책로  
쾌적한 야간보행 환경 조성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백산저수지 산책로 치안 인프라 강화로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산저수지 산책로는 전북특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시한 안심산책로 조성 범죄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백산저수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보행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백산저수지는 인근에 지평선산업단지, 신축아파트 단지, 인접마을들이 자리하고 있어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야간에 저수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시도 밝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 공모 선정은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해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이달부터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임신 사전 건강관리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 여성 나이 15~49세)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 최대 13만원 남성에겐 정액검사비(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을 자녀 수 관계없이 1인 1회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과 함께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관할 확정

## 헌법재판소, 새만금 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은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이 확정됐다.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의 근거 규정인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합헌이라며 군산시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할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의 관할도 아니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는 지방자치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 기각결정으로 2015년 10월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소송전으로 끌고왔던 일말의 법적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됐으며, '2호 방조제 = 김제 관할'

은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이 확정됐다.

또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이 두 번씩이나 판결한 새만금 전체 구간의 관할구도는 더욱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다른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도 속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1~4호 방조제 소송과정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은 방조제 결정이 내측, 외측 매립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도 각 방조제와 연결한 내측 매립지 뿐만 아니라 신항만 관할권을 염두에 두고 첨예한 주장과 논리를 전개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 4호 방

조제는 군산시로 정해졌고, 전체적 관할 구도로 만경강과 동진강 자연지형, 인공구조물의 위치와 연결관계에 따라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 관할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도출된 것이기에 향후 방조제 내·외측 매립지 관할결정에 더욱 의미를 갖게됐다고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이 잘못됐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 소송을 진행하기도 패하자 결국에는 '지방자치법 자체'가 문제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이번엔 기각됐다"면서, "관할권 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분쟁을 계속 이어가려 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법 질서 아래에서는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이 삼봉지구에 조성할 고운삼봉도서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뜬다.

## 삼봉지구 고운 삼봉도서관 23일 '첫 삽'

### 2025년 8월 준공 목표

완주군이 삼봉지구에 조성할 고운삼봉도서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뜬다.

완주군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삼봉지구 고운삼봉도서관 건립부지(삼례읍 수계리 1229-2번지)에서 기공식을 갖는다.

고운삼봉도서관은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지하 1층~지상 3층, 연 면적 2,969㎡ 규모로 조성된다.

주요시설은 자료실과 청소년 존, 공동육아시설, 민원센터로 구성되며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공식은 경과보고와 축사, 기공 퍼

포먼스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치는 삼례초등학교 옆 공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행사장까지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된다.

삼봉지구는 현재 4,099세대 9,000여 명의 주민들이 입주해 있으며, 고운삼봉도서관이 들어서게 되면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과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고 지식정보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서진순 도서관사업소장은 "삼봉지구 에 많은 주민들이 유입돼 완주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고운삼봉도서관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안나푸르나서 펼쳐진 '완주 대둔산 축제' 깃발

### 박용민 완주산악연맹 이사 히말라야서 축제 홍보



지난달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 오른 완주산악연맹 박용민 이사가 안나푸르나 기도깃발 앞에서 직접 제작한 완주 대둔산 축제 홍보 깃발을 펴들었다.

완주 대둔산 축제 홍보 깃발이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중심에서 펼쳐졌다.

지난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 오른 완주산악연맹 박용민 이사가 안나푸르나 기도깃발 앞에서 직접 제작한 완주 대둔산 축제 홍보 깃발을 펴들었다.

박용민 이사는 "완주 군민이자 산악인으로서, 그리고 대둔산을 품고 있는 완주 운주면 주민으로서 대한민국 명산 중 하나인 대둔산에 대한 자부심을 항상 갖고 있었다"며 "산악축제로 새롭게 태어난 완주 대둔산 축제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산악축제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하고자 나섰다"고 설명했다.

완주 대둔산 축제는 지난해 전북지역 유일의 산악축제로 13년 만에 부활했다.

올해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어디든

도전해 봐 대둔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둔산 잔디광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기존 산악축제 콘셉트 및 가족 중심 프로그램 확대, 챌린지 프로그램의 도입, 각종 체험 프로그램 리뉴얼, 먹거리 부스 구축 등 다양한 프

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호남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대둔산은 우람한 산세에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 빼어난 절경을 자랑한다. /완주=염재복 기자

### 김제시 보건소,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7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대상은 김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70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며 기존에 접종을 하였던 경우 예방접종 금지자인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접종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는 매일 09:00~16:00에 접종이 가능하며 보건지소는 예진의 순회진료로 인해 접종일이

상이하므로 전화 후 방문해야 한다.

대상포진은 이전에 앓았던 수두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반복발생하는 질환으로 65세 이상에서 발생률이 8~10배 높다. 또한, 신경통 등 후유증도 유발해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만 고가의 접종비로 대상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안겨주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 5월 31일까지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9일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지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전담팀을 운영해 가택 및 사업장 수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해 부동산·차량 및 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 및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악의적 납세 기피자에 대한 감치 신청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3회 차량번호판 상시영치활동 및 월 2회 야간영치를 실시하고, 일제정리기간 중 2회 '시·읍면동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

나라 과태료 체납 처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대포차를 포함한 상습 체납 처량을 추쇄 및 견인 조치와 공매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 납부서비스(142211)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나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성실 납세의 의식 고취 및 공평과세 정착을 위해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로 경제 회생 지원 등 공감 받는 세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드립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